

2023. 10. 5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5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 자료

담당부서: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

서울기록원장 고 경 희 350-5610

기록정책과장 윤 정 훈 350-5611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5쪽

관련 누리집 (서울기록원) <https://archives.seoul.go.kr>

### 서울기록원에서 열린 희곡 낭독회 <희곡 모음집>으로 다시 만나볼까

- 서울기록원, '희곡 낭독회'로 시민참여프로그램 <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 막 내려
- 참여자들이 완성한 단막 희곡 작품을 모은 <희곡 모음집>, 서울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발간
- 서울을 배경으로 집필된 참여자들의 희곡 작품 <모락모락>, <정독도서관> 등 총 8편 수록
- 10월 6일(금)부터 열람 가능... 시민들이 희곡 작품으로 풀어낸 다채로운 '서울 기록' 공유 기대

- 서울기록원(원장 고경희)은 지난 8월 운영한 시민참여프로그램 <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를 통해 참여자들이 완성한 단막 희곡 작품을 모은 <희곡 모음집>을 10월 6일(금) 서울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.
- 희곡 쓰기 프로그램 <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는 서울시민들이 서울과 관련된 각자의 일상과 추억을 희곡의 형태로 기록함으로써 기록문화의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.
- 서울기록원은 서울시민들의 삶을 기록화하는 <서울기록화 사업>의 일환으로 올해 수집 주제 '연극'과 연계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기획하여, 8월 9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매주 수요일, 총 4차시 프로그램으로 <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를 운영했다.

- 〈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〉에 참여한 시민들은 극작가 장영 (1인 극단 ‘눈과빛과영’)의 안내에 따라 희곡의 기초를 배우고, 글쓰기에 대한 조언을 받아 ‘나만의 단막 희곡 작품’을 완성했다.
- 극작가 장영은 2018년 국립극단 「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」에서 〈G의 영역〉이 당선되어 데뷔했다. 대표작으로는 〈Fan〉, 〈낭독의 목적〉 등이 있다.
- 이 프로그램은 지난 8월 30일(수) ‘희곡 낭독회’로 마무리되었다. 희곡 낭독회는 나만의 서울 이야기가 한 편의 예술작품으로 완성되는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참여자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 이를 위하여 연극배우들을 초청하여, 연극배우들의 목소리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희곡 작품을 공연하는 시간을 가졌다.
  - 희곡 낭독회를 위해 연극배우 ▲이지혜, ▲권주영이 초청되었다.
  - 아울러 희곡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극배우 ▲김정화, ▲최희진, ▲이선도 희곡 낭독에 참여하여 희곡 읽기의 즐거움을 더해주었다.
- 10월 6일(금)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〈희곡 모음집〉은 프로그램의 결과물인 참여자들의 희곡 작품 8편을 책으로 한데 엮은 것이다. 이 책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서울을 배경으로 완성한 희곡 작품들을 소개한다.
  - ▲〈Have a Good Day〉, ▲〈유령여행연습〉, ▲〈양 한 마리〉, ▲〈버스데이 잔치〉, ▲〈정독도서관〉, ▲〈공든 탑이 무너지랴〉, ▲〈모락모락〉, ▲〈민주와 민정〉 등 총 8편의 단막 희곡 작품이 〈희곡 모음집〉에 수록되어 공개된다.
  - 서울에 대한 각자의 기억이 담긴 희곡 작품들은 향후 서울시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동시대적으로 기록화된 귀중한 ‘서울기록’으로 서울기록원에서

수집·보존될 예정이다.

-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“서울과 관련된 나만의 추억을 희곡이라는 형태의 이야기로 새롭게 써보며 그동안 잊고 있던 고향 서울에 대한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다”, “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내가 사랑하는 서울의 공간을 어렵게만 느껴졌던 희곡으로 기록해 볼 수 있어 신선한 경험이었다”라며 소감을 전했다.
-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은 “희곡 쓰기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서울에 대한 새로운 추억을 선사한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”라며 “참여자들이 들려준 서울의 이야기를 더 널리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희곡 모음집을 펴내게 되었다”라고 밝혔다. 아울러 “서울기록원은 시민들이 기록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채로운 기록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-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기록원 누리집(<https://archives.seoul.go.kr>)을 참고하거나,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(02-350-5615)로 문의하면 된다.

- 붙임 1. 〈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〉 프로그램 운영 사진 1부.  
2. 〈희곡 모음집〉 표지 1부. 끝.

**붙임 1 <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 프로그램 운영 사진**



<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 운영 사진



<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 '희곡 낭독회' 운영 사진

붙임 2 <희곡 모음집> 표지



<희곡 모음집> 표지